

제 20 장 사도 행전 Tape #8109

19 장의 뒷부분에, 은세공업자 데메트리오로 말미암아 일어난 에베소의 큰 소요가 있었는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같은 직업의 동료들 함께 불러, 이것이 우리들의 생활 방편에 위협을 초래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음을 말했습니다. 그들이 신들은 손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만들어 판 다이아나의 작은 우상들로 그들은 큰 이익을 얻었고, 부자가 되었는데, 이제 예수그리스도를 믿으러 나오는 사람들은 그 우상 구매를 그만 둘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큰 소동을 일으켜 사람들을 격동시켰습니다. 그들은 에베소에 있는 2 만여 명이나 참관할 수 있는 대극장에 모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구호만을 외치기 시작했는데, 위대하시도다, 에베소 사람들의 다이아나여! 라고 말합니다. 마침내 도시의 서기, 또는 시장은 사람들을 안정시켜 그 혼란스러운 집회를 해산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20 장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1절 “소동이 그치매,” (에베소의 대형 극장에서 일어났던 대소동을 말합니다.)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포용하고 떠나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니라.”** 그래서, 바울은 분명 거기 소요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울의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하여, 바울은 유럽으로, 마케도니아로 다시 기수를 돌리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가 마케도니아의 도처에 세웠던 교회들, 빌립보, 베레아, 그리고 데살로니가의 교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말합니다.

2절 “그가 그 지방들을 다녀가며 많은 말로 그들을 권면하고 그리스로 들어와,” 이것은 고린도로 다시 돌아온 것을 말합니다. **3절 “거기서 석 달을 머물다가,”** (이것의 전[whole] 시간은 바울의 삶의 일년 기간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략 두 절 안에 모두 요약되어 있지요. 그래서 바울의 삶과 사역에 대해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많이 들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에게 그의 한 해의 삶에 대해 대략만을 선언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 3 개월 동안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배타고 시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숨어서 그를 기다리므로 마케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지금 바울은 오순절 날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길 원하였고, 이 절기 기간에 예루살렘으로 순례하기 위한 배들, 말하자면, 관람용 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4월에 개최되는 절기인 오순절 기간은, 그 시기에 지중해를 여행하기가 일년 중 가장 어려운 계절이었는데, 이는 폭풍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4월보다는 6월의 항해가 더 좋기 때문에, 그들은 오순절 절기를 항상 더욱 흥미로운 잔치로 꾸미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이 오순절의 절기에 예루살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절기들에 예루살렘을 순례하기 원했을 유대인 모두가 타고 있던 배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진하여 하나님께 출석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멀리 살았다면, 그들은 그것에 도착하기 위해 더욱 노력했어야 할 것입니다. 세 개의 절기 모두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한 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은 절기 때문에, 이 절기 날들에 거기에 있기 위하여 세계 각처에서 온 사람들로 항상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한 음모에서, 만약 바울이 배를 탔다면, 우리가 지중해 한 가운데로 나가서, 밤중에 그를 붙잡아 바다에 집어 던져 버리면, 아무도 모른다는 점을 그들은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절기를 위해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해 들었고, 그리하여 그는 더 현명한 계획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 그곳을 가는데, 마치 겨안은 것처럼 해안을 끼고 아시아를 통과하여 내려가지 않고, 마케도니아로 빙

돌러서 가기로 했던 것입니다. 즉 그는 마케도니아를 통해 돌아가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신중한 위험에 자신을 그냥 두지 마세요. 하나님은 두뇌를 주셨고, 그 분은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어려움에 대해, 저것과 같은 문제를 인식한다면, 심각한 위험에 자신을 그냥 두고, 예, 주님, 당신은 나를 돌보십니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뇌를 주신 것은 아닙니다.

바울과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 절 “그와 함께 아시아로 들어갈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 소바더와,”**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곳은 그에 대해 언급한 유일한 곳으로, 그가 베레아에서 태어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지금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 인사말을 할 때 두 번 더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가 바울과 친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베 사람 가이오와,”** (자, 고린도에 있는 가이오가 있고, 또 다른 가이오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세 명의 서로 다른 가이오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디모데와,”** (물론 그는 역시 더베 지역에서 온 사람이었으며, 루스드라와 더베는 같은 지역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아시아 사람 두기교와,”** (그는 에베소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 바울의 편지를 운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 지역들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들 교회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서신들을 운반했습니다. 두기교는 바울과 함께 그의 여행에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바울의 보조자였습니

다.) **“드로비모더라.”**

5 절 “이 사람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 머물며 우리를 기다리고,”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앞서 갔으나, 그들의 계획은 드로아에서 모두 만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위해 돈을 모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앞으로 쓰기를,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헌금을 비축했다고 말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아마도 그것들을, 즉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가져가기 위한 헌금을 모으도록 여러 교회들에 보내졌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드로아에서 만날 것이고, 그 뒤 드로아에서 그들은 일행이 되어 함께 예루살렘으로 갈 것입니다.

6 절 “우리는 무교절 기간이 지난 뒤에,” (여기에서 누가는 다시 그 일행들과 합류합니다. 오랫동안 누가는 바울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 그러나 바울이 빌립보를 떠났을 때, 또는 그가 빌립보에 왔을 때, 누가는 다시 그와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곳에서, 우리가 항해를 했다고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인칭 대명사를 유념해 보세요. 무교절 기간이 지난 뒤에 빌립보로부터 떠나는 것은, 4 월에 있는 유월절과 무교병의 절기 뒤를 말합니다.)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닻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닻새 동안에 에게 바다의 그 부분을 가로 질러 갔습니다.) **“이래 동안 거기 머무니라.”**

7 절 “주의 첫날에 주의 제자들이 빵을 나누려고 함께 나오니,” (지금 이것은 어떤 한 가지 사실을 지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초기에 이방인 교회에서는 그들이 일요일에 만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빵을 떼고, 우리가 흔히, 성찬 예배라고 부르는 의식을 가졌는데, 그들은 주의 첫날에 모여 행했던 것입니다. 또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편지를 썼을 때도[고전 16:2], 빵을 떼기 위해 주의 첫날에 함께 모였다고 기록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안식,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셨던 한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많은 언약들이 있어, 노아와도 한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것의 표적은 하늘의 무지개로서,

홍수로는 다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 언약의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무지개를 두실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는 그 씨로부터 메시야가 나온다는 것이었고, 그 언약의 표적은 할례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한 언약을 세웠는데, 그것은 율법이었습니다. 만약 너희가 이 율법, 규례, 명령 등을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언약이었고, 그 언약의 표적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출 31:16-17 에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이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있을 영원한 표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므로, 이방인은 이 언약 아래 있지 않았습니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로운 상속의 언약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잔을 취하시며, 이 잔은, 죄들의 사면을 위하여 흘린, 내 피로 세운 새 상속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당신은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새 상속의 언약을 우리와 세우셨습니다. 이 여러 가지의 언약들이 있으나,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제 7 일 그리스도 교회나 제 7 일 침례교회,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어떤 교회든지, 그들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꼭 토요일에 예배를 해야만 한다는 것인데, 그것들은 안식에 대한 율법을 지키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만약 너희가 전체의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의 법을 위반하기만 해도 모든 것에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이행하도록 전[whole] 율법을 계속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안식일을 정통하게 지키는 유대인들은 그 날에 자동차를 운전하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실린더에 불을 붙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순간 불을 붙이므로 점화장치를 켜는 것이 되고, 차체를 통하여 가는 그 불꽃, 그 점들이 불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불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정통한 유대인들은 차를 운전하지 않으며, 안식일에 차에 시동도 걸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그들은 가전제품에 전원을 연결하지 않으며, 또한 가전제품에 전원이 연결되었을지라도 그것을 켜지 않습니다. 전등에 불을 붙이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에 전등을 켜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정통한 사람은 그 안식일을 고수하려고 매우 엄격하게 삽니다. 그래서 당신이 만약 안식일 교회의 교인이라면, 진짜 당신은 안식일에 교회 오는데 운전을 하지 말았어야만 합니다. 또한 당신은 2/3 마일 이상을 걸으면 절대 안 됩니다. 만약 당신이 온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당신은 저주를 받기 때문입니다.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받은 자라[갈 3:10].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그러한 율법적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그 분과 율법적 관계를 가져야만 한다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분과 사랑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위대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이 초대 교회에 나타났을 것인데, 그래서 그들은 주의 첫날에 모이기 시작했던 것인데, 여기서 우리는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떼기 위해 함께 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튿 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왜냐하면, 그가 떠나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과 함께 한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한밤중까지 말을 하니라.”** 8 절 **“그들이 함께 모인 다락방**

에 등불을 많이 켜는데,” 횃불들이거나, 아니면 등불들입니다. 9절 “유두고라 하는 젊은이가 창문에 걸터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오랫동안 말씀을 선포하며 졸다가 삼층 다락방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더라.” 그는 삼층 다락방에 있었습니다. 당신이 알다시피, 위로 올라갈수록 더 더운데, 이는 그 장소를 밝히는 모든 횃불들과 그 연기들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을 사실 비난할 수 없을 것인데, 바울이, 알다시피, 밤중까지 설교하고 있으니, 그만 그가 잠깐 졸아, 곧 잠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창문을 벗어나 뜰 아래로 굴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자, 죽음이 있자, 그들은 큰 비탄에 빠졌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것입니다. 그들이 시작한 슬픔은 매우 구슬픈 종류로서, 이 젊은 생명이 없는 몸을 보자, 그 여인들은 비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10절 “이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를 껴안고 이르되 그 생명이 그 속에게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하고,” 이것으로 작별이라 말하지 마세요, 이제 울부짖는 소리를 멈추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그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생명이 여전히 그에게 있다는 것이죠. 11절 “그러므로 다시 올라가,” (이것은, 그들이 만나고 있었던 삼층으로 다시 올라갔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내려와서 그 아이에게 엎드렸다가 다시 위층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빵을 나누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그는 따르는 사람들과 위에서 밤을 새며 머물렀습니다. 12절 “사람들이 살아난 젊은이를 데리고 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그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짜 위로가 된 것입니다.

13절 “우리는 배에 먼저 가서 배타고 앗소로 떠나 거기서 바울을 태우려고 하였으니 이는 바울이 스스로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였음이라.” 다소로부터 앗소까지 뱃길로 약 50km 정도였습니다. 여러분은 거기 한 지점을 잠깐 둘러보아야만 합니다. 바울은 32km 정도 밖에 안 되는 지역이기에 걸어서 횡단하기로 결정했는데, 아마도 혼자 있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에게 아마도 약간의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그의 열망이며 의도였으나, 하나님의 영께서는 예루살렘이 그에게 친숙한 장소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하시며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핍박, 사로잡힘, 투옥, 다툼 등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는 단지 종종 혼자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오직 스스로 32km 를 걸어서 가고자 했습니다. 너희들은 배를 타고 돌아서 가고, 나는 앗소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그래서 그는 스스로 32km 를 걸었습니다. 그가 앗소에 왔을 때, 물론 그들은 그를 마중하러 나왔습니다.

14절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그를 태우고 마들레네로 가서,” 15절 “거기서 배타고 다음 날 기오 맞은편에 이르고 그 다음 날 사모에 도착하여 드로길리움에 머물고 또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 16절 “이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시간을 보내려 하지 않았음으로,” (에베소는 밀레도로부터 메엔더 강 위에 있었습니다. 밀레도는 해안 지대에 있었고,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의 거리는 약 45km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로 올라가는데 그 시간들을 쓰고 싶지는 않았으나, 또한 그들을 만나고 싶어, 그가 에베소에 있는 그 교회의 감독들을 만날 수 있도록 사자들을 보냈고, 그러자, 교회의 지도자들이 밀레도, 거기 해안으로 그를 만나러 나왔습니다.) “배타고 에베소 옆으로 지나가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이며 또 가능한 한 오순절 날이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에 이르고자 서둘렀기 때문이더라.” 절기에 맞추어 돌아가고 싶었기 때문에, 그가 서두릅니다.

17절 “바울이 밀레도에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니,” 18절 “그들이 오매 그가 이르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 모든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어떻게 지내왔는지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왔던 첫날부터, 내가 너희 사이에 살아왔던 삶을 너희가 안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19 절 “**곧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얼마나 놀라운 특성인가! 일종의 고상한 태도를 갖는 것인데, 종종 하나님께 사용되었던 사람에게서 다른 것과 구별을 나타내는 표가 되는 특성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사람들과 교제를 끊기 시작하고, 자기 중요성의 감정을 가지기 시작하는 곳에서 일종의 기고만장한 태도 같은 것이 있으나,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굉장한 것에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때, 정말로 그들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사람보다 진짜 위에 있다고 생각하며, 그들이 그 사람을 소위 높이거나 올리는 인간의 경향이 있음을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길로 그들을 다루려 하고, 그러면 그들은 그 길로 다루어지는 것이 편하게 되며, 결국 그들은 그 길로 다루어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고, 자기 중요성과 위대함 등의 느낌을 가지기 시작할 때가 정말로 슬픈데, 왜냐하면 사람이 당신을 특별한 방법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가장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매우 능력 있게 하나님께 사용된 사람이고, 나의 전 생애에 있어 이 이상 겸손한 사람을 아직 만나 본 적이 없을 만큼, 그는 그 겸손에 대해서 완전히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바울과 똑같은 놀라운 본보기가 됨을 그에게서 봅니다!) “**맑은**

눈물로 주를 섬기며 또 숨어서 나를 덮치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시험을 받으면서도 주를 섬기고,” 내가 거기에 있던 동안, 나는 눈물로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고 있었소. 내가 여러분에게 전념하는 만큼이나 눈물을 흘렸는데, 내가 시험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거기에 있었던 동안 내가 통과했던 것을 여러분이 알지만, 시험은 유대인들의 음모로 인해 내게 생긴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20 절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숨기지 아니하고 보여 주며,**” (바울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이익이 되거나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가 나눴습니다.)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너희를 가르치고,**” 바울의 사역은 그들 앞에 살아있는 본보기였습니다. 내가 살았던 방법으로 당신들에게 보였던 말이고, 본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같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었을 만큼, 그의 삶은 모범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믿는 자의 본이 되라고 말하면서, 내가 어떻게 너에게 보인 것과 가르친 것에 대해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르침이 참 많았는데, 사람은 흔히 강의식 가르침만으로 하는 것보다 보여 증명하는 것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사람의 삶에서 그것이 살아있다는 것을 당신은 알 수 있고, 그것은 당신에게 실체가 됩니다. 당신이 알지만, 아무도 그것들로 살 수 없는 그와 같은 고상한 원리들을 지지할 수 있게 되며,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으니, 만약 당신이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등을 증명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지지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줍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모두에게 공개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주를 기억하겠지만, 바울은 매일 오후에 공개적으로,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집으로 다니며 가정교회에서 가르쳤는데, 이는 가르치려고 다른 집에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21 절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거 하였노라.**”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신뢰하는 것 등을 증거 했습니다.

22 절 “**보라 이제 내가 영 안에서 결박당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거기서 내가 무슨 일을 딱칠지 알지 못하노라.**” 23 절 “**오직 성령님께서 각 도시에서 증언하사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도

잘 모르지만, 나의 장래는 불확실합니다. 내가 아는 전부는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뿐입니다. 내가 체포당할 것이고, 다툼과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4 절 “이런 일들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이것은 나의 목적에서 나를 옮기려고 하지만, 투옥의 두려움이나 공포가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나의 목적을 결코 단념시키지 못합니다. 이것 중 어느 것도 나를 옮기지 못하고, 나는 이미 가기로 결정했다는 말이 됩니다.) **“또한 내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실제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도 유익이라고 그는 말했기 때문입니다.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이 더 좋다고까지 말했던 자입니다. 그는, 내가 원하는 바는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인데,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어있으니, 어느 것이 훨씬 좋을까? 감정이 섞여 있기는 하지만, 그 하나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고, 어느 것이 훨씬 좋단 말인가? 또 하나는, 너희가 여전히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을 도와 줄 수 있도록 주변에 머무는 것에 대해 세계 끌어당기는 것을 느낀다고 했습니다[빌 1:19-26].

당신도 알지만, 나는 우리 모두가 아마도 감각적으로 이 일들을 경험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딱 죽고 싶었고, 도리어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러나, 당신이 알지만, 가족은 여전히 나와 모든 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잠시 동안 곁에서 기다리게 되었고, 아직도 그 일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라고 있습니다. 오, 하늘에 도착해 있을 것과 영광스러운 왕국 등을 보는 것은 얼마나 흥분되는 일인가! 그래서, 떠나려는 욕망을 가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본 대로, 바울은 하늘을 잠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약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이 있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늘에 끌려 올라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동경함이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 몸으로 있는 우리는 종종 신음하지만, 진정으로 그것들 밖으로 옮겨가기를 바라면서, 형체가 없는 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새로운 몸으로 입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몸으로 집에 더 머무는 한,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이나, 우리가 차라리 이 몸들에 있지 않는 것을 선택할 것이기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는 하늘에 있었던 적이 있으므로 그곳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어서, 다시 그곳에 가 있고 싶은 것입니다. 나를 기다리시는지는 잘 모르지만, 또한 그것에 대해 걱정하지도 않지만, 단지 내가 거기에 가고자 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내 자신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 몸으로 사는 것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실제로 그것에 의지하려고 하는 그 어떤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바람은,) **“이것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 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바울은 생활을 경주처럼 보았습니다. 경주에서 달리는 그들은 잘 달려야 하지만,

오직 한 사람만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달려야 합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경주의 마지막에 대해 말했는데(딤후 4:7-8),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 경주를 끝마치기를 원했습니다. 당신이 보는 대로, 내가 믿기는, 하나님은 우리 삶에 대해 각자를 위한 역사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계획의 성취되는 과정에 있는 한 그 계획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을 그 분께서 정하셨다면, 우리가 끝마치기 전까지 여기에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그 뒤 그 분이 우리를 집으로 데려가실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늘에 있는 집으로 가기 위하여 이 경주를 기쁨으로 마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준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대해 사람들에게 증언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도 말입니다. 당신이 획득할 수 없다 해도 그렇습니다. 그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은 영생의 선물을 당신에게 제공하시고, 당신의 죄의 용서와 하늘에서 그 분과 함께 있을 장소를 제공하십니다. 당신이 그것을 획득하는데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당신은 그것을 받을만하지도 않지만, 당신을 위하여 그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것이 당신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공의와, 자비와, 그리고 은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공의는 당신이 받을만한 것을 받고 있는 것을 말하고, 만약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항상 그것을 즐깁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면, 원컨대 그들에게 심판을 바랍니다. 주님, 당신의 의로운 심판이 임하소서!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에게 기도할 때는, 그렇지 않고 항상 자비를 구하며, 자비를 내리소서, 오 주님! 이라고 기도합니다. 자비를 구하는 것은 당신이 받을만한 것에 대해 얻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공의는 당신이 받을만한 것을 받는 것이지만, 자비는 당신이 받을만한 것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당신이 받을만하지 않는 축복과 영광을 받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자비를 기뻐하시고, 은혜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향하여 그분의 은혜에 대한 놀라운 복음을 설교하도록 바울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결코 획득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당신에게 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받을만하지 않다는 것, 그러나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영생의 선물을 당신에게 수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던 이 사역, 이것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25 절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 다니며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였으나 이제는 너희 모두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우리가 서로 볼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을 적어도 나는 알고 있습니다. **26 절 “그러므로 내가 이 날 너희로 하여금 증거 하게 하거니와 내가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니,”** 이것은 여러분들을 볼 아마도 마지막 시간이지만, 이것만은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는데,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하다고 말합니다. 18 장에 돌아가 보면, 6 절에서,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을 때, 유대인들은 그를 비난하기 시작하며, 큰 문제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바울은,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나는 이방인들에게 가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대언자에게, 네가 만약 사악한 자들에게 그들이 멸망하리라고 너희가 경고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들의 사악함으로 멸망되려니와, 그들의 피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물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순결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당신들이 기록하기를 바라고, 내가 순결하기 때문에, **27 절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밝히 말하였음이라.”** 내가 하나님의 모든 모사를 여러분들에게 다 선언했소. 그러므로 나는 깨끗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모사를 들은 것이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오래 전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통해 똑바로 가기로 결정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전체를 통해, 하나도 건너뛰지 않고 똑바로 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모사를 당신에게 선언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한 절도 건너뛰지 않았습니다. 목사가 전 성경을 통해 양의 무리를 인도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느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건너편다면, 당신이 무엇인가를 생략하는 것이 되지만, 지금까지 가고 있던 것은, 우리는 일곱 번째 하고 있으므로, 나는, 내가 이 날 당신들로 하여금 증거 하게 하되, 나는, 하나님의 모든 모사를 다 선언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8 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셨나니,” 이제 주의를 기울리라!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 분의 양떼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먹인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고 물으셨고, 베드로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분은,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사랑하는지 당신은 아십니다. 그러면 나의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그것은 목사들, 목자들, 양의 무리의 감독들이 하나님의 양의 무리를 먹이는 책임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가지는 우선되는 책임이 있다면,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는 것입니다. 그들을 돌러보고, 감독하는 것 말입니다.

그 분이 그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진술입니다. 그 분이 그 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그 분께로 화복하게 하셨습니다. 흥미로운 노트입니다! 아이는 어머니로부터 23 개의 염색체와 아버지로부터 23 개의 염색체를 받습니다. 아이가 둘에서 하나의 복합물이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양을 가지고, 피를 결정하는 염색체들은 아버지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라는 것이 이 23 개의 염색체에서 왔듯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9 절 “이는 내가 알거니와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요,” 저 밖에 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오려 하고, 당신을 삼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30 절** “또 너희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임이라.” 교회의 비극 중에 하나는, 이리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혹은, 들어온 이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혀 이리와 같아 보이지 않기에, 예수님은, 그들이 양의 옷을 입은 것에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주목받기를 원하는 자들, 자리를 원하는 자들, 능력을 원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들 자신들 뒤로 사람들을 끌어오기 위해 뒤틀린 일들을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 갈보리 채플에서도 일어난 것을 경험했습니다. 단지 양떼에 대해 이익만을 빨아들이려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31 절** “그러므로 깨어 있어 내가 삼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들은 예레미야를 눈물의 대언자라고 불렀습니다. 음, 나의 상상으로는, 바울도 그렇게 분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데, 삼년동안 밤낮으로, 내가 눈물로 훈계하고 있었다고 말했으니까 말이죠.

32 절 “이제 형제들아,” (내가 가려고 하는데, 더 이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못할 것이며, 이것이 아마도 우리가 서로 보는 것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을 주리라.”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데, 저 밖에는 파괴하려고 하는 이리들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양떼 안에조차 우월함에 대한 추구와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려는 자들이 있으므로, 내가 하나님께 여러분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과, 여러분을 세울 수 있고 강하게 만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는 것과, 칭의를 받은 모든 자에게 이 상속권을 주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삶의 상속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 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 분과 함께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 분을 계신 그대로 볼 것임이라. 우리가 이들이라면,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입니다. 오라,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아,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왕국을 상속받으라(마 25:34)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도 말하기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는 상속을 받게 하셨나니, 곧 너희를 위해 하늘에 예비해 두신 것이라, 너희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벧전 1:3-5)고 했습니다. 삶에 있어 이 영광스러운 성도의 상속, 이것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에 대해 쓰기를 계속하면서, 말하기를, **33 절 “내가 어떤 사람의 금이나 은이나 옷을 탐내지 아니하였고,”** 내가 당신들로부터 취한 것이 거기에 아무것도 없었고, 당신들의 은이나 금이나 옷이나 의상을 탐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34 절 “참으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및 나와 함께 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여,”** 지난 주 우리의 수업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바울은 에베소에서 천막을 만드는 사람으로 일을 했고, 거기서 그들은 그의 땀받이 수건을 취하여 병든 자에게 그것들을 놓으면 그들이 치료를 받았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에 의존해서 살지 않고, 자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준비하기 위하여 그의 손으로 일을 했던 것입니다. 나의 필요성을 위해 사역하는 자이고, 나와 함께 하는 자들을 위한 사역자입니다.

35 절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 주었노니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다시 당신에게 보여주고 가르쳤다는 것으로, 유능한 자들과 강한 자들이 일하는데 있어, 무능한 자들을 위해 사역하고, 그들을 도와주어야 하는 본보기를 지금 정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 부족함에 있는 자들, 또는 필요가 있는 자들 때문에, 이 관심과 나눔이 어떻게 거기에 있어야만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그것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그 필요성과 나와 함께 한 자들의 필요들을 위해 준비했고, 나는 그 본보기를 당신들에게 주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노라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지금 당신이 그 인용을 복음서 어디에선가 살펴 보려한다면, 그것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은 의심할 것 없이 예수님의 것을 인

용하고 있지만, 그 복음 저자는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요한이 그의 복음서 말미에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 썼던 모든 것이 있다면, 내가 상상하기로, 그가 말했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도서관들이 써졌을 그 책들을 다 담아둘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록되지 못한 예수님의 말씀들이 매우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알고 있었기에, 아마도 다른 제자들로부터 들었을지 모르는데,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하나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물론 흥미로운 영의 법의 역설들 중에 하나입니다. 영의 법 안에서 높고자 하는 길은 내려가고, 내려가고자 하는 길은 높아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셨기에(마 23:12), 높고자 하는 길은 내려가고, 내려가고자 하는 길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높이려고 하면 주님은 당신을 내려놓을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낮추면 주님은 당신을 높이실 것입니다. 얻는 길은 주는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 주리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됩니다. 내가 어린 아이 때는 그것을 믿지 않았으나, 부모가 되고, 지금은 할아버지가 되고 보니 내가 그것을 분명히 증거 할 수 있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많은 복됩니다. 오, 주는 것의 축복됨, 놀라운 것입니다!

36 절 “이렇게 말한 뒤 그가 무릎을 꿇고 그들 모두와 함께 기도하니,” 얼마나 아름다운가! 당신이 해변에 있는 그들을 볼 수 있습니까? 바울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드로비모와 그 일행들은 배타고 가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고, 배는 거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과 에베소의 장로들이 있고, 이들은 해변에서 모두 무릎을 꿇고, 거기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그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아주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내가 좋아합니다.

37 절 “그들이 다 몹시 슬피 울며 바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38 절 “무엇보다도 다시는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그 말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며,” (그들이 슬피 울었기 때문에, 이것은 감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말한 사실, 너희가 다시는 내 얼굴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 때문에 그들의 대부분은 슬펐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교회를 맡은 이 장로들에게 사역을 하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매우 감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을 맡기는 것입니다.) **“베에까지 그와 함께 가니라.”** 그들은 나와서 작별인사를 했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있을 불확실한 미래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 이 대언들과 모든 것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므로, 이루어질 투옥에 관한 것이고, 그가 거기에서 모든 고통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주님이 그에게 훈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버지, 다시 당신의 말씀으로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처럼, 진리를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살았던 진리의 본보기를 볼 수 있도록 하소서. 주님, 경건함에서, 의로움에서, 생각과 생활의 순결에서, 우리가 믿는 자들의 본보기가 되게 하소서. 주님, 특히 너무 사악해지는 세상에서 말입니다. 열매를 잃어가고 있는 세상에서, 세상에 있는 사악함으로 너무 부도덕한 세상에서, 주님, 당신 앞에서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순결하게 지켜 주소서. 세상으로부터 흠이 없게 하소서. 우리에게 세상의 얼룩이 없게 하소서. 그러나 의로움으로, 진리로, 거룩함으로 당신 앞에서 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고보, 그가 말한 말씀이 생각나는데,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말씀을 들으나,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거울을 보는 사람과 같은데, 그가 그곳을 떠나자마자, 그가 본 것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당신이 거울 속을 볼 때, 진리를 보고, 주름진 것과 어떤 것이든지 봅니다. 모양이 없는 상태를 말하지요. 그리고는 떠나자마자, 어떤 예쁜 소녀가 지나가고, 정색을 하며 고쳐 앉고, 당신의 것

중에 제일 좋은 옷을 살핍니다. 당신이 거울을 통해 보았던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행하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입니다. 당신은 오직 속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가지지 못합니다. 그것이 거기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길 바라고, 좋은 주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